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2호 【루계 제25020호】 주체10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사리원시에 높이 모시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영광스러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노도처 내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수도 평양의 관문도시 사리원시에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29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제막식장은 황북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주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인민군군인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기발게양대들에서 나붓기고있었다.

김영남동지,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곽범기동지와 리철만 내각부총리,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임혼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돌격대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도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황해북도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포들이 벗겨지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환영곡이 울리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며 터져오르는 속에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상공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황해북도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황해북도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황해북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황해북도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도안의 당사업과 경제, 문화사업을 비롯한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 1월 13일 사리원군중대회에서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밝히는 력사적연설을 하신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도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의 모든 당조직들이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손길은 대규모흑색야금기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황주천의 자그마한 황주직물공장, 신계미루벌을 비롯하여 도안의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들과 농장벌들, 교육, 보건, 예술, 출판보도기관들마다에 뜨겁게 어리여있다.

진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황해북도를 현대적인 도시와 공장들, 사회주의문화농촌들이 일떠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연설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도안의 수많은 단위를 찾고 또 찾으시면서 평양의 남쪽판문인 황해북도가 앞장서나가도록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당위원회와 공장과 농촌의 당일군들도 친히 만나주시면서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와 정책적지도를 잘하며 당사업을 명실공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진행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여러차례나 례성강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고 대규모수력발전기지로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미곡협동농장의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면서 전국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고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이 있어 미루벌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서흥군 범안리,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과 같은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지고 사리원시 민속거리와 도예술극장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

연설자는 오늘 도안의 전반사업이 철저히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잘되여나가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언제나 몸가까이 뵈오며 살고싶은 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신다는 소식을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접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열정을 다 바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황해북도 전체 인민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를 걸어온것처럼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무해주신다는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목숨바쳐 옹위하며 원수님의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충정다해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에 선전선동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에서 제시하는 과업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철저하게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황해북도의 특성에 맞게 농사에 큰 힘을 넣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도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례성강청년3호발전소건설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현대화공사, 도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훌륭히 완공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태양의 영상을 언제나 우러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수령님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문선명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련합 전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하여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김 정 은

주체104(2015)년 8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고 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풍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민주풍고,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적신념을 따라배우고있다.
—마두산혁명전적지 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신문, 인터네트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에티오피아 팽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20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출판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출판사사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령도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였으며 세계평화와 안전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조선의 선군혁명사상은 위대하며 선군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의 전문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7월 27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의 전문을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7월 27일 각각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홈페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쟁로병들은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선배들이다》의 전문을 14일 꽁고인터네트신문 《꽁고-싸이트. 콤》이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청년중시정책이 펼쳐지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

남조선인민들 높이 격찬

젊음으로 약동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 안겨 귀중한 청춘시절을 값높은 헌신과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우리 청년들의 자랑찬 모습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으며 끝없이 동경하고있다.

백두회 회원 정상일은 오늘 세계적으로 청년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문제의 하나로 되고있지만 이북에서만은 그것이 빛나게 해결되여 청년들이 순결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참신하고 활력있는 력량으로, 사회와 력사발전의 위력한 주역으로 되고있다고 토로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강세철은 이북청년들은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생각하며 자기를 바치는것을 행복으로 간주하고있다, 처녀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있는것은 물론 처녀, 총각들이 영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루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앞을 다투어 구원해주고 심지어 남을 위해 피와 살, 목숨까지도 바치고있다고 경탄을 표시하였다.

한 언론인은 이북에서는 청년들이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 최고의 영예로 간직하고 인민군대에서 조국보위투사로 튼튼히 자라난다고 하였으며 정치학교수 강남은 이북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한 정치학교수는 이북청년들은 미래를 사랑하고 언제나 신심과 락관, 열정에 넘쳐 청년전위의 위훈과 기상을 떨치며 청춘시절을 빛내이고있다고 가슴속진정을 터놓았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 청년운동가는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빛나는 공적을 세운 이북청년들의 애국의 열정과 기상, 활달한 표정과 꾸밈없이 소박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북녘의 청년들이 안겨사는 주체의 사회주의사회가 얼마나 우월하고 활력있는 사회인가를 온몸으로 절감하였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청년중시정책이 펼쳐지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보며 남조선인민들은 그 길에 바쳐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며 한없는 그리움에 눈굽을 적시고있다.

광주의 퇴직교수는 집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오늘날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이북특유의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김정일령도자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의 정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한 청년단체 회장은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일찌기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운동이라는데 대해 밝히시고 청년조직을 김일성주석님의 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고 말하였으며 전라북도 완주의 한 대학생은 청년조직을 김일성주석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나도록 해주신 김정일장군님은 청년운동의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서울의 한 청년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동서고금력사에 없는 청년절을 제정해주시여 이북사회에 청년중시기풍이 차넘치도록 해주신것만 보아도 청년들에 대한 그분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것이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 믿음은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청년들의 대부대가 자라날수 있게 한 근본비결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 장광식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선군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훌륭히 키우신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이라고 격찬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번영의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꿈과 희망, 사랑이 넘치는 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깃든 불멸의 자욱을 더듬어

무릇 동심을 호기심 많은 꿈의 세계라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그래서인지 세계의 이름있는 동화들에서 많이 그려진것은 아이들의 꿈세계였다.

아이들은 이런 작품들을 보며 주인공들에게 자기들의 고운 꿈과 나래치는 환상을 한껏 얹는다.

동심은 희망의 세계, 환상의 세계이기도 하다.

하늘을 훨훨 나는 비행사, 펄펄 나는 정찰병, 위성을 쏴올리는 과학자…

가보고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은 세계인가. 신기한 별나라, 행복의 섬…

그것이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성장에 도움을 주는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말그대로 꿈의 세계이고 동경의 세계일뿐이다.

하지만 실지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는 궁전이 조선의 송도원에 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푸르른 바다, 이채로운 백사장으로 금물결, 은물결이 쉬임없이 밀려들어 물방울로 구울다가는 모래불에 스며드는 해수욕장, 간간이 불어오는 해풍이 소나무우듬지들을 가볍게 어루만지는 울울창창한 숲…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이런 기막힌 명당자리에 위치하고있는 신비스러운 아이들의 궁전이다.

벌써부터 싱그러운 송진내, 시원한 바다물 비린내에 취한 우리의 일행모두가 각양각색의 환성을 올렸다.

《우리 야영소에 처음 오십니까?》

《몇번 되는데 너무 희한하게 변모되여 처음 온듯 한감이 듭니다.》

그럴것이라고 동의하며 일군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우리는 먼저 우리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어린이들을 사랑의 품에 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경건히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야영2각 문주우 원형장식띠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이 집대성되여있는 구호, 우리 당에 대한 학생소년들의 고마움이 소중히 깃들어있는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한눈에 안겨들었다.

바로 여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고,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는 일군의 이야기는 우리모두의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격랑치게 하였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할 불타는 의지로 시련도 고난도 웃으며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선군령도의 길이 눈물겹게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야영각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안내를 받은 곳은 2층복도에 설치한 란간앞이였다. 훌륭한 건축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란간이였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사연이 깃들어있는 란간이였다.

처음에 설치한 란간은 그닥 든든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야영소를 돌아보시는 날 란간을 흔들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난이 세찬 아이들이 란간에 기대여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사고가 날수 있다고, 란간을 든든하게 당장 보강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여 다시 설치한 란간이였다. 우리의 손은 저도모르게 란간으로 갔다. 지심깊이 뿌리박은 철탑마냥 든든하였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였으면…

그날의 우리 원수님의 웅심의 세계를 읽는 우리에게 일군은 말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야영소는 하나에서 백, 천까지 다 이런 가슴뜨거운 어버이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궁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내체육관, 활쏘기장 등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가면서 보는 모든것이 너무 황홀하여 어느 동화에서 나오는 룡궁에 들어선듯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영장과 홀사이를 유리로 막아놓고 아무런 표식도 해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유리로 막은것을 모르고 들이받으면 이마에 혹이 생길수 있다고, 삼각형표식을 하든지 무슨 장식을 해주어 아이들이 유리를 들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한다.

관람석도 재미나게 꾸리고 벽체장식도 동심에 맞게 잘한 실내체육관에서 들은 이야기도 감동적이였다. 절벽톱아오르기기재바닥의 일정한 구간에 깔개를 깔아주도록 하신 다심한 은정에 대한 일화였다. 그 폭신한 깔개를 어루쓸어보는 우리의 손은 격정으로 떨리였다.

색타일로 세계지도를 크게 형상한 국제친선소년회관 왼쪽벽면에서 유표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었다. 굉장히 큰 시계였다. 그 시계도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여놀다가도 그것을 보고 시간을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설치한것이라고 한다. 금방 해수욕장에서 돌아오던 아이들이 약속한듯 시계를 올려다보는것이였다.

어쩌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속속들이 알고계실가. 어쩌면 그리도 다심하실가.

보는것, 듣는 모든것에서 절로 이런 감탄으로 목이 메이게 하는 궁전이였다.

없는것이 없는 종합체

극장, 오락시설들, 실내체육관, 야외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야외무대, 수족관, 조류사…

아무리 돌아보아도 끝이 없는 희한한 궁전이였다.

의문은 이 많은 기재들, 방들을 아이들이 야영기간에 다 리용할수 있을가 하는것이였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리해한듯 일군은 말하였다.

《야영생활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생동안 인상깊은 체험으로 남도록 하여야 한다고 깊이 마음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없는것이 없는 궁전으로 세심히 꾸려주신 학생소년들에 대한 과외교양의 종합체입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면서 그는 우리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로 이끌었다.

나는 정찰병, 위성을 쏴올리는 과학자…

하나를 배워도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배우며 어려서부터 조직과 동무들을 사랑하고 사회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할 애국심을 심어주는 교양실이였다.

우리의 취재는 립체률동영화관으로 이어졌다.

금시 공룡의 발밑에 깔릴것만 같아 비명을 올리기도 하고 신비한 자연의 세계에 심취되기도 하는, 일당백용사처럼 좌우에서 달려드는 적들을 무리로 쓸어놓히는것만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립체률동영화관,

아이들처럼 언제까지라도 영화관을 떠나고싶지 않아하는 우리를 보며 일군은 가볍게 웃었다. 웃으며 그는 우리의 취재길을 재촉하였다.

가면서 우리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거울집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어린이들의 궁전을 현대적으로 일신시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시는 나날 어떻게 하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없는것이 없는 궁전으로 꾸려주겠는가를 두고 깊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활쏘기장가까이에 거울집을 지어줄 발기를 하시였다.

건설에 동원되였던 일군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엄청난 자금이 드는 집이였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하신 음성이 일군들모두의 심장을 울리였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 좋은것을 다 주고싶은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 아이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혹은 무서워도 하고 혹은 신바람이 나서 빠져나오기도 하는 그 신비한 《미궁》의 세계인 거울집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생겨나게 되였던것이다.

겨우 한 모퉁이를 돌면 다시 거울벽이 막아선다. 온통 거울벽천지이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익숙된 일군이 우리를 꿈을 꾸는것만 같은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었다.

이 거울집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야영소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는 일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 젖어들게 하였다.

밖에 나오니 아스라하게 솟은 소나무우듬지들사이로 스며드는 해빛으로 눈이 막 부실듯 하였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용차를 타고가시였으면 하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무엇때문에 승용차를 타고다니겠는가고 하시며 몸소 앞장서 걸으신 길을 따라 야외운동장으로 향하였다.

바다가야영소맛이 나게 온통 푸른색으로 단장된 야외운동장, 색과 모양이 기막히게 조화를 이룬 관람석채양, 운동장바닥의 파란 인공잔디와 관람석의자…

마치 한폭의 그림같았고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같았다.

정말 손색이 없었고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 한 걸작이였다.

오죽하였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은 이런 재미에 하는것 같다고 그처럼 만족해하시였으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된 지난해 5월의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멋진 운동장에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를 관람하시며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금치 못하신 우리 원수님, 무한한 감격과 행복으로 세차게 일렁이던 관람자들…

량팀 선수들과 감독들, 심판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우리 원수님,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경기보장성원들까지 몸가까이에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날의 우리 원수님의 한없이 인자하시고 매혹적인 모습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이 나라 천만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행복넘치는 우리 아이들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환희로운 음악세계에 담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축하공연, 천첩만첩으로 꽃펴나 사회주의문명국의 화원을 아름답게 할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앞날의 세계를 보여주듯 천갈래만갈래로 터져오른 불보라…

우리만의 격정의 추억이 아니였다. 야외운동장에서 그날을 더듬는 일군의 눈에서도 어느새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흐르고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잊을수 없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막행사에 참가한 수많은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간식을 마련해주신 감동깊은 사실을 덧붙여 들려주는것이였다.

주변은 온통 수영복을 입고 뛰노는 아이들로 꽃바다를 이루었다.

한쪽에서는 첨벙 물에 뛰여드는 소리, 한쪽에서는 와와 소리치며 신나게 급강하물미끄럼대를 타는 아이들…

이곳에서 들은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격정을 절정에로 승화시키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물놀이장에 현대적인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설치해주면 야영생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해수욕을 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빨리 설치하여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물미끄럼대였다.

선군령도로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물놀이장에 새로 설치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직접 보아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야영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퍼지게 되였다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준다고 그처럼 행복에 겨워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눈물겹게 그려보게 하는 급강하물미끄럼대가 아닌가.

이런 다심하신 어버이사랑속에 아이들에게 야영기간 음식문화도 배워주는 료리실습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벌써부터 여기에서 싸부랑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고 하신 미술실, 아이들이 아무때나 물에 뛰여내리기를 할수 있는 야외물놀이장의 뛰여내리기수조, 등산지식보급실이 우리의 멋과 우리 식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된것 아니던가.

어서 오라 신비의 세계로

세계에는 야영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봄, 가을에 야영하는 아이들은 여름계절을 그리워하고 여름에 야영하는 아이들은 봄, 가을계절을 그리워한다.

안팎이 일색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처럼 계절에 관계없는 아이들의 궁전, 모든 조건이 종합적으로 다 갖추어져있는 야영소는 세상에 없다.

모든 요소요소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호텔, 궁전이였다.

침실을 돌아보면 모든것이 동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아늑한 침실에서 아이적처럼 고운 꿈을 꾸며 쌔근쌔근 잠자고싶고 국제친선소년회관에 들어서면 마이크를 쥐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싶으며 수족관에서는 턴넬식수조에서 유유히 헤염치는 갖가지 물고기들을 점도록 보고만싶은 신비의 세계…

《해님 따라 피는 꽃》, 《우리 앞날 밝다》, 《나는 꽃망울》, 《고마운 품》, 《만복의 요람》 등 아이들의 서예작품들이 전시된 솜씨전람실은 또 얼마나 서툰 솜씨일망정 자랑하고싶은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것인가.

이런 멋진 궁전을 어디 가서 또 볼수 있으랴.

우리의 조국은 어디 가나 아이들의 왕국이라는 노래가 절로 나왔고 끝간데없는 후대사랑의 천만리를 펼친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게 하는 궁전이였다.

종일 발이 시도록 걷고 또 걸었지만 힘든줄 모른것이 이상하였다.

꿈에서 본것만 같은 이 모든것을 아예 안고가려는듯 누구도 떠날념을 하지 않았다. 좀전에 야외물놀이장에서 보았던 애들이 여러 나라 아이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가왔다.

궁금해하는 우리의 속내를 읽었는지 애들이 저저마다 설명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고운 꿈 꽃피우는 조선의 아이들이 부럽답니다.》

《조선의 어린이로 다시 태여나고싶답니다.》

《해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오고싶은것이 소원이랍니다.》…

소소리 뻗어오른 소나무숲으로 하여 꿈과 희망, 사랑이 넘치는 궁전은 어느덧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냥 돌아보게 되는것이다.

동심으로 부풀었던 마음을 사랑의 궁전에 남기고가는 우리의 심장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쩡쩡 메아리치는듯 하였다.

돌아볼수록 모든 건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을뿐아니라 요소요소에서 조선의 얼굴이 살아나고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보장되였다는것이 눈에 띄게 알립니다!

우리는 모든 건축물들에 당의 후대관이 비끼게 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된 건축물들을 통하여 앞날의 조국의 모습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도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됩니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됩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조국앞에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1993년 3월에 몸소 찾아오시였던 뜻깊은 곳이라고, 야영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신 이태전 5월이며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듭거듭 당부하신 바다바람 세찬 2월의 그날…

저 출렁이는 해수욕장의 물을 잉크로 대신한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다 전할수 없다는 감동이 우리의 뇌리를 쳤다.

전국의 소년단야영소들과 소년회관들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수준으로 꾸리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이다.

이런 숭고한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멋쟁이야영소가 얼마나 많이 설계되고있을것인가.

귀로에 오른 우리의 가슴은 끝없이 밝고 양양한 조선의 미래를 품들여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리고 넘쳐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앞날에 대한 락관이 부풀어올랐다.

본사기자 량 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긴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비약의 대통로를 열어제끼는 전면적인 공세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완공기일이 결정되게 될 물길굴공사장에서 만사람의 가슴을 후련케 하는 승전포성이 련이어 울려퍼지고있다.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10월에 청천강전역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울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전적으로 이 공사수행에 달려있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모든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활화산마냥 거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전선시간과도 같은 격동의 분과 초가 흐르는 속에 전구간에서의 상부피복공사가 훌륭히 완수된데 이어 29일현재 많은 량에 달하는 하부확장 및 콩크리트치기과제가 수행되는 자랑찬 혁신이 창조되였다. 특히 취수구부문의 확장과 콩크리트피복실적이 전달에 비해 2배이상으로 높아져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비약의 대통로를 통쾌하게 열어제낀 이 혁혁한 성과속에는 언제나 순간의 주저나 답보도 없이 불리한 공사조건을 주동적으로 맞받아 뚫고나가고있는 현장지휘부일군들의 공세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통이 큰 일본새가 크게 안받침되여있다.

이곳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난관이 막아서고 시련이 겹쌓일수록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주되는 화력을 집중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나간것이다. 특히 모든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하나의 구호, 한번의 선동도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쿵쿵 울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특색있게 진행하는것이 좋다.

물길굴공사장을 신념과 의지의 대결장으로 여기고 전화의 나날 영웅전사들처럼 총결사전을 벌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발전소를 완공하자.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진 맹세를 목숨바쳐 지키자!

현장속보판과 직관판, 영예게시판들에 청천강용사들의 피를 펄펄 끓이게 하는 전투적인 글발들이 나붙고 자랑찬 투쟁위훈과 드높은 실적을 과시하며 사회주의경쟁도표의 붉은 줄들이 승리의 정점을 향해 앞을 다투어 기세차게 솟구치고 있다.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현장지휘부의 책임일군들은 각 려단들에서 물길굴공사를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면서 돌격대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틀어쥐고 요구성을 최대로 높여나가고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사업에서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물길굴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칠수 있도록 공사작전과 지휘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고있는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공사목표는 뜻깊은 10월전으로 지금 수행중인 물길굴공사를 비롯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훌륭하게 끝내고 실지 전력생산까지 완전무결하게 정상화하는것이다.

이에 맞게 현장지휘부에서는 유능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지휘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각종 륜전기재들과 압축기, 착암기, 혼합기, 양수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각 단위들의 로력혁신자들과 기능공들을 망라하여 지원로력을 종전보다 2배이상으로 늘이였다. 특히 대담하고 혁신적인 공법들을 통이 크게 받아들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현장지휘부책임일군이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벨트콘베아를 비롯한 능률적인 설비들을 제작도입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버럭처리속도를 단번에 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물길굴공사에 떨쳐나선 6개 단위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종전같으면 석달은 실히 걸린다던 작업과제를 불과 50일만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물길굴상부피복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8월에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물길굴확장실적을 근 두배로 늘이고 많은 량에 달하는 하부피복공사과제를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자강도려단 지휘관, 돌격대원들도 실정에 맞게 독특한 공법들을 련이어 받아들이면서 기계화전을 줄기차게 들이대고있다.

이곳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언제나 대중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며 전면적인 공세로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갈 때 자랑찬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결사관철의 기상 나래치는 전투장

애국의 심장은 불가능을 모른다

함흥수리동력대학에서 달려나온 교원,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청천강을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창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애국충정의 대오속에는 함흥수리동력대학에서 달려나온 미더운 교원, 연구사들도 있다.

신경일, 김태규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은 전력공업성 제1전력설계연구소와 긴밀히 협동하여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회천10호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이들앞에 현실에서 절실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련속 제기되였을 때였다. 특히 적지 않은 구간에서 기초암반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건설을 어떻게 내밀겠는가가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해당 부문, 단위들의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대담하고도 혁신적인 공법을 창안도입하기 위하여 피타는 사색과 고심어린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였다.

전력공업성 제1전력설계연구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함흥수리동력대학 수리공학부 학부장인 교수 박사 신경일동무와 대학의 설계연구소 실장인 박사 부교수 김태규동무도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였다.

서병화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이들의 연구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으며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곳 대학의 연구집단은 새로운 언제설계와 공법도입에 떨쳐나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최신과학기술자료들과 많은 량에 달하는 연구계산자료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특히 언제기초밑부분에서의 물스밈과 씻김현상을 막기 위해 3차원응용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연구도입한 새로운 설계 및 시공방법은 언제를 비롯한 수력구조물들의 안전성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회천10호발전소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조성국, 조성일, 강영남, 유영림, 오종찬동무들도 직접 해당 려단들의 기술참모, 시공참모로 활동하면서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언제와 발전기실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집단의 자랑으로 떠받들리고있다.

8개 발전소건설장의 무넘이언제의 하류보강판과 도류벽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수천개에 달하는 배수공을 줄이였으며 합리적인 방수로시공방법과 휘틀제작방법 등을 연구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량의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성과속에도 이 대학 연구집단이 바친 숨은 노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애국의 심장이 불탈 때 불가능이란 없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함흥수리동력대학에서 달려나온 교원, 연구사들은 청천강반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높이 애국의 주로를 변함없이 달려가고있다.

우리도 유훈관철전의 전위투사

화학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얼마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주요마감대상공사인 언제수문설치가 전부 결속되였다. 10월의 대축전장에로 향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벅찬 시기에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속에는 수문생산은 물론 각 단위 전투원들과 함께 그 조립과 설치를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묵묵히 바쳐온 화학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숨은 노력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4월말 화학건설련합기업소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설비보장을 맡은 일군들이 찾아왔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언제구조물공사가 앞서나가는데 맞게 수문제작을 시급히 따라세우기 위해 이 련합기업소에서 생산을 맡아줄수 없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당시 련합기업소에서는 중요한 대상설비제작과 건설공사를 이미 맡고있는 상태여서 설비능력도 모자랐고 기능공력량도 부족하였다. 더우기 수문제작경험이 전혀 없는데다가 수문생산과제가 너무나 아름찼기때문에 쉽게 결심을 내릴 일이 못되였다. 김명일, 리재술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중요건설대상의 첫자리에 내세워주시지 않았는가. 자기 단위의 조건과 실정만 전면에 내세우고 제일처럼 도와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구상을 총정으로 받드는 건설부문 일군들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기업소책임일군들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맡아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으로 차고넘치였다. 련합기업소적인 긴급협의회가 진행되고 각 사업소, 직장별로 광범한 토론이 거듭된 속에 현실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뒤이어 수문생산을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김금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한개 단위, 부문씩 맡고나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수문제작이 가지는 중요성을 로동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기중기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며 절단공정에서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용접기대수를 더 늘이며 해당 직장에서 용접봉생산을 종전보다 곱절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사업소, 직장들에서 밤낮이 따로 없이 치렬한 제작전투가 벌어졌으며 보장단위들의 종업원들과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와있던 어제날의 고급기능공들까지 스스로 떨쳐나 수문제작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다.

수문제작을 본격적으로 벌린 6개월동안에 93개의 수문은 물론 모든 발전소의 발전기실대형철문과 취수구고정격자, 사다리와 란간 등 무려 2 800여t의 제판품생산과제가 성과적으로 결속되는 자랑찬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들이 지닌 주인다운 자각과 헌신적인 투쟁기풍은 현지에서 진행된 수문조립 및 설치공사과정에 더 높이 발휘되였다. 이들은 대형추레라들을 정비개조하면서 적지 않은 량의 수문부분품을 운반보장한 그 기세로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비상한 열의밑에 올해초부터 회천9호와 8호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와 조립전투에 달라붙었다.

땡짠 날씨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이곳 로동계급은 평양시려단, 평안남도려단 돌격대원들과 협동하여 육중한 수문부분품들을 지상확대조립하고 운반설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현수일, 김용식, 한정익동무를 비롯한 기업소일군들은 련속 립체전을 벌릴 작전밑에 여러 직장과 사업소들의 력량을 5개 공사장으로 진출시켜 해당 단위 돌격대원들과의 협동작전이 기동성있게 벌어지도록 하였다.

지난 7월 중순부터 마지막대상인 회천12호발전소건설장에서 벌어진 수문조립과 설치공사는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의 충정의 열도와 불굴의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전투장들에 일제히 기동전개한 각 직장과 사업소전투원들은 자신들의 조립공사수행정형에 따라 발전소의 완공기일이 결정된다는것을 심장깊이 명심하고 남보시려단 전투원들과 함께 순간도 멈춤없이 전격전, 립체전을 드세게 벌려나갔다. 하여 불과 20여일동안에 17개의 수문조립 및 설치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전부 성과적으로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의 전변을 함께 안아오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발전소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3련승을 안아온 사회주의증산경쟁

황해남도려단 정치부 사업에서

모든 사업의 열쇠는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달려있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조직하여 올해에 진행된 려단별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3련승을 한 황해남도려단 정치부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입니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는데서 려단정치부가 잘한 점은 어려운 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여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게 한것이다.

가물막이구간굴착 및 성토작업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려단정치부장 안영구동무는 려단의 일군들과 진지하게 토의하는 과정에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여 려단앞에 제기된 공사과제를 앞당겨 끝낼 결심을 내리였다.

려단정치부에서는 경쟁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우선 대대별경쟁을 위주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 소대간으로 세분화하여 조직하였다. 한것은 대대별로 경쟁을 조직하면 실적을 총화하고 평가사업을 하기는 헐할수 있지만 경쟁열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못했기때문이였다.

려단장 김석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경쟁대상을 규정하고 경쟁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작업의 질과 량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진행정형과 자재절약정형, 기술혁신정형, 후방사업정형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였다.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면밀한 준비밑에 가물막이구간굴착 및 성토작업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대대, 중대, 소대별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이 선포되였다. 40일이 걸려야 할수 있다고 하던 공사를 불과 10일동안에 끝내는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고 경쟁을 세분화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공사의 돌파구가 열린것은 말할것도 없고 경쟁대상들사이의 승벽심을 최대로 높여주었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는데서 려단정치부가 잘한 점은 다음으로 총화평가사업을 개인별실적위주가 아니라 대대, 중대, 소대의 종합적인 계획수행률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함으로써 온 려단에 집단주의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한것이다.

려단정치부에서 경쟁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짜고들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경쟁평가기준에 대대, 중대, 소대들에서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꽃피워나갈데 대한 항목을 반영하고 그것이 리행되였을 때 점수를 더 가산해주는 원칙을 세우게 하였다.

여러모로 좋았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앞선 대대가 뒤떨어진 대대를 도와주는 미풍이 차넘치는 가운데 려단안의 모든 대대들이 직선주로에 서게 되였다.

경쟁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려단정치부가 잘한 점은 긍정적사실을 제때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경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대대장, 정치지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에 한번씩 려단적인 총화모임에서 대대별실적총화와 긍정자료를 통보해주는 사업이였다. 총화자료들은 시, 군당위원회들에 통보해주는 원칙을 세웠다.

좋은 점이 있었다. 앞선 단위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돌진하였다. 또한 앞선 단위들에 도전해나서는 대대들이 늘어났다. 시, 군당위원회들도 사회주의증산경쟁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단위를 앞선 단위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여들게 되였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는데서 려단정치부가 잘한 점은 또한 대중의 승벽심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분위기조성사업을 잘한것이다.

당일군들은 물론 자재, 후방 등 려단안의 모든 일군들로 고정담당제를 내오고 일군들호상간에 경쟁을 활발히 벌리게 한것이 그 실례이다.

종전에는 몇몇 일군들로 대대들에 대한 고정담당제를 내오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는것이 관례로 되였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하면서부터 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가 달라졌다. 자기 단위 사업은 당과 국가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부문별경쟁에 적극 뛰여들었다. 그가운데 은률군대대가 앞선 대대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이 높은 사회주의증산경쟁방법을 받아들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는 려단정치부 일군들의 사업은 진취적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세폭의 붉은기 펄펄 휘날리며 전진 또 전진

각지 당조직들에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이 많다. 그 앞자리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나가는 단위들이 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중운동을 벌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대중운동은 해당 단위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어떻게 틀어쥐고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그 생활력이 나타나게 된다.

얼마전에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닌 오석산화강석광산 당조직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사상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이곳 당조직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온 실례자료들은 많다.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광산구내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정중히 꾸리였으며 문화회관과 청년학교를 비롯한 교양장소들에 5대교양자료와 당의 구호들을 게시하여놓고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리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 과정에 광산에서는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화강석가공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광산은 전투력있는 단위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문화혁명의 불길속에 이룩한 성과는 또 어떠한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오는 과정에 광산에서는 생산건물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였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구내와 담당한 산들을 수림화, 원림화하였다. 대중체육과 군중문화사업도 활발히 벌려 종업원들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랑만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대중운동에 큰 힘을 넣으니 광산의 전반사업에서는 전례없던 혁신이 이룩되였다.

얼마전에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닌 청진스레트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단위이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벌려왔다.

공장구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고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였으며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도 령도업적단위답게 잘 꾸려놓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참가하려는 종업원들의 열의가 높아졌다. 자체의 힘으로 저열탄에 의한 순환비등층보이라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개조하여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해마다 스레트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최근년간에만도 공장에서는 마감건재생산의 국산화비중을 훨씬 높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문화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공장의 면모도 일신되였다. 건물들을 보수하고 구내에 살구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여기에 튼튼한 후방기지가 꾸려져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 당조직에서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잘 꾸려놓고 종업원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장화사출공정을 현대화하고 7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해마다 땡시있고 질좋은 사출장화생산을 정상화하였다. 그 과정에 공장은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와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받았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번듯하게 꾸리였으며 해마다 건군절과 전승절을 계기로 원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인민군부대들에 보내주었다.

이런 성과속에 공장은 얼마전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였다.

대중운동의 불길은 교육부문 당조직들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당조직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연구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교직원들속에서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학생들을 선군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에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칭호를 쟁취한 학교당조직에서는 대중운동의 생활력이 그대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밖에도 철산군관개관리소, 송원군산림경영소, 금야군 련동협동농장 제5작업반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앞선 농장의 대렬에 들어서기까지

룡천군 동신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룡천군 동신리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지난해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가져온 이른콘모재배방법을 전체 면적에 100% 받아들일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면적이다. 그만큼 모판자재를 계획된 날자까지 마련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리당위원회에서는 관리위원회에서 조직한 사업이 뒤여나가지 않도록 뒤에서 적극 떠밀어주어 모판자재확보사업을 씨뿌리기전까지 기본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다. 이것을 목격하면서 군안의 일군들은 리당위원회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간의 합심이 잘된 결과라고 말하군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사연을 보기로 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업해나가도록 당적으로 잘 뒤받침해주며 보채야 합니다.》

모판자재확보정형을 알아보던 관리위원회일군들의 심중은 무거웠다. 모판용나래준비사업이 미처 끝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그것을 알게 된 리당비서는 그 문제는 리당일군들이 맡겠으니 관리위원회일군들은 파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씨뿌리기를 잘하도록 농장원들을 잘 이끌어주라고 당부하였다.

리당비서 백영숙동무는 다음날 부비서 김광복동무와 함께 모판자재확보사업에서 뒤떨어진 농장원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씨뿌리기를 제 날자에 보장하지 못하여 튼튼한 벼모를 키워내지 못하면 알곡소출에서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된다는것을 지난해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자와 대비하여 농장원들에게 알기쉽게 해설해주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모판에 씌울 나래를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계획된 날자까지 마련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쳐나갔다.

이렇게 되여 뒤떨어졌던 농장원들이 분발하게 되였고 마침내 씨뿌리기전에 모판용나래를 거의 장만해놓게 되였다.

이런 사실도 있다.

기사장이 종자확보를 비롯하여 종자처리에 필요한 시약들을 마련하느라고 싹틔우기에 필요한 석탄보장문제는 한 일군에게 과업만 주고 미처 채근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석탄이 미처 마련되지 못하게 되였다.

어느새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당일군은 종자처리에 필요한 석탄을 다 마련해놓고 기사장 최창식동무앞에 척 나타났다. 석탄문제는 해결되였으니 마음을 놓고 종자처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밀고나가라고 할 때 기사장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이 나날속에 농장에서는 드디여 이른콘모재배방법을 100% 받아들일수 있게 종자처리도 잘하여 씨뿌리기를 짧은 기간에 말끔히 결속하고 튼튼한 벼모를 키워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게 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그후 농사를 밀고나가는 과정에 관리위원회일군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문제들을 발견하면 제때에 알려주기도 하고 걸린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튕겨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고있다.

관리위원회가 조직한 사업이 드팀없이 진척되도록 뒤에서 능란한 조직적수완과 해박한 과학기술지식으로 적극 떠밀어주는 리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 의하여 농장의 모든 일은 눈에 띄게 잘되여나가고 군적으로 뒤떨어졌던 이 농장은 오늘 모든 면에서 앞장선 여러 농장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은 당일군들이 힘껏 떠밀어줄수록 행정일군들이 마음껏 사업을 설계하고 그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주체교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와 함께 이룩된 자랑찬 성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발표 1돐을 맞으며

10년을 주름잡아 달려온 보람찬 한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 1년사이에 놀라운 전변을 이룩한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놀라운 속도, 눈부신 발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요약한 몇건의 자료가 우리앞에 놓여있다.

근 700개의 대학, 학교건물이 일떠서거나 증축되여 새로 생겨난 교실만 해도 수천개, 새로 제작된 책걸상은 16만 3 000여조, 1만수천개의 실험실습실들이 개건되고 새로 마련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와 기구들은 무려 수십만점…

이뿐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변모되였고 온 나라 교정들에 200여만그루의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다.

사동구역 장천고급중학교가 농촌학교의 본보기로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것을 비롯하여 평양시와 구성시, 회창군, 삼천군 등 전국의 모든 시(구역), 군들에서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평성시에서는 은정동지구에 고급중학교와 소학교를 단 몇달만에 새로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고 시안의 유치원들을 주민지대에 보다 가깝게 건설하였으며 후탄고급중학교를 비롯한 60여개 교육단위들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평성시 중덕소학교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5층짜리 새 교사와 수영장을 건설하고 본교사도 번듯하게 개건함으로써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놓았다.

평양교원대학에서 교사를 새로 건설하고 조옥희해주교원대학에서 체육관을 멋들어지게 완공하였으며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에서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을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에서 교사들과 도서관, 기숙사 등을 새로 짓거나 훌륭히 개건하였다.

참으로 지난 1년은 나라의 교육사업이 놀라운 속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조국청사에 특기할 빛나는 한해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학부형이 되여

3월학교지원월간에 전국의 모든 후원단체들에서 교육기관들에 보내준 설비, 자재, 물자들만 놓고 보아도 온 나라에 몰아치는 교육지원열풍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존을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 3만 5 000여대, 세멘트와 강재 수만t, 목재 수만㎥, 실험실습설비와 기구 28만여점…

이외에도 체육기자재와 건설자재를 비롯한 수많은 항목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지난 3월 한달동안뿐아니라 온 한해 전당, 전국, 전민이 학부형이 되여 교육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이 드세찬 애국열풍속에 지금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황남공업대학, 남포해운대학, 평양제4소학교와 구성제1중학교를 비롯한 각지 교육기관들에서 모든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날로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수백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외진 산골학교에까지 찾아가 콤퓨터를 비롯한 교육설비들과 학교건설자재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산골마을에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황해남도당 책임일군을 비롯하여 전국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인재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회령시와 해주시, 삼지연군과 태천군, 청남구를 비롯한 모든 시(구역), 군들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평안남도림업관리국, 강서탄광을 비롯한 각지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학부형이 된 심정에서 대학들과 학교들을 도와주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을 펼치고있다.

이처럼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온 나라가 교육부문을 우선적으로, 책임적으로 도와주었기에 10년, 20년 맞잡이로 줄달음쳐온 지난 한해의 성과가 그토록 눈부시게 빛나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한경철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훌륭히 개건된 평성시 중덕소학교

학교사업을 잘 도와주고있는 순천시체신소 일군들

필승의 기치, 휘황한 설계도

◇오늘의 시대는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국으로 될수 있지만 인재가 부족하면 자기의 운명을 남들의 지휘봉에 내맡기는 현대판노예가 되고만다. 력사는 지난날 광활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강국으로 자처하던 나라들이 인재의 부족으로 하여 세계무대에서 서산락일마냥 빛을 잃는것을 한두번만 기록해오지 않았다.

국력을 좌우하는 인재는 절로 자라나지 않는다. 비옥한 토양에서 알찬 열매가 무르익듯이 훌륭한 교육제도만이 인재의 대부대를 키워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민족인재의 무성한 숲을 자래울수 있는 인재강국건설의 기름진 터전이다.

이처럼 훌륭한 교육제도를 가지고있기에 우리 당은 지식경제시대를 주도해나갈 인재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필승의 기치이며 인재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자면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기둥감, 재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합니다.》

지난해에 열린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전달받은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터친 감격의 목소리를 다시금 되새겨보자.

《주체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이야말로 새 세기 교육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필승의 기치이다.》, 《금시라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재강국이 움씰움씰 일떠서는것만 같다.》…

온 나라가 그토록 격정에 넘쳐있던 그때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동안 이 땅에는 주체교육을 최상의 수준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인재강국건설의 위대한 전성기가 펼쳐졌다.

종합대학들과 각급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전국의 많은 초급, 고급중학교, 소학교, 유치원들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어찌 그뿐인가. 어디 가나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 지식경제시대의 새 풍경이 펼쳐지고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대학생들을 어디서나 만나볼수 있다.

◇모든 일군들이 새 세기 교육혁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나가야 한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따라세우지 못할 때 남에게 뒤떨어진 과학기술의 노예가 되고만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업은 아름차고 시간은 촉박하다. 방도는 오직 하나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더욱 강하게 밀고나가는것이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교육사업을 당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이 사업에로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책임일군들부터 학교들에 자주 나가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 교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항시적으로 알아보며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가 눈부신 현실로 펼쳐질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

당의 교육정책관철의 기수가 되여

교육위원회 일군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 온 나라가 끓어번지고 비약으로 줄달음쳐온 보람찬 한해였다.

하나의 숨결을 안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에로 나아가는 이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교육위원회 일군들이 서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과 애국의지가 빛발치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과업들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연구하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는 탐구의 하루하루는 위원회안의 일군들이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온 나날들이였다.

분과별로 세워진 대책안들, 수시로 열리는 협의회들에서 올려나온 열기띤 목소리들에도 혁명의 전도와 조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후대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비상한 책임감이 실려있었다.

교육사업을 우리 식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이곳 일군들이 벌려나가는 투쟁의 한초한초는 결코 사무실에서만 흘러가지 않았다.

책임일군으로부터 국장들, 정무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지에 달려나가 각급 당위원회 일군들,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사업발전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으며 대학들과 학교들에 내려가 교수참관과 교수합평회도 진행하면서 교육자들의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려나갔다.

혁신의 기상이 넘치는 새 교재집필전투장과 교과서생산전투로 들끓는 인쇄공장들에도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온 위원회일군들의 노력이 슴배여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발휘된 교육위원회 일군들의 투쟁기풍은 당정책을 어떻게 심장으로 접수하고 관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당의 교육정책관철의 기수로 앞장에서 달려온 교육위원회 일군들의 불같은 헌신으로 하여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을 위한 방대한 사업들이 짧은 기간에 수행되였다.

부문별, 지역별종합대학들과 직업기술대학들이 나오고 대학들에서 학제와 학부, 학과와 강좌들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 등이 활발히 벌어져 교육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교육과학원이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중요대학들과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교육과학연구소와 교육과학연구실, 교육학부를 내온것은 나라의 교육과학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열풍이 모든 대학, 학교들에 세차게 일어번지였다.

지금까지 수백종에 달하는 새 교재집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수천만부에 달하는 교과서와 참고서가 생산되여 공급된것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올해에만도 우리의 나어린 학생들은 제56차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쟁취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미더운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인 《코드쉐프》경연에서 여러차례 우승하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인재강국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 모든 경이적인 성과들은 주체교육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기적이라고 교육위원회 일군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우리 당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활동을 통하여 페부로 절감하고있는 위원회안의 모든 일군들은 오늘도 새 세기 교육혁명을 위한 대오의 앞장에서 더욱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교육과학의 새로운 령역을 개척하며

김형직사범대학에서

후대교육의 원종장이며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김형직사범대학은 나라의 교육과학발전에서도 큰 몫을 맡고있는 교육과학연구의 중심기지의 하나이다.

대학에서는 지난 1년간 높은 목표를 내걸고 교육과학의 새로운 분야들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새 세기 교육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다시한번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나라의 전반적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합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부단히 혁신해나가고있는 벅찬 현실은 교육과학연구사업도 실천에 접근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비약의 기치로 틀어쥔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교육과학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다.

교육과학의 새로운 분야들을 적극 개척하는것과 함께 학술형인재들을 위주로 키워내던 지난 시기의 교육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현실에 절실히 필요한 실천형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데로 지향시켜나간것은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였다.

그리하여 교육심리학을 비롯하여 응용실천적문제들을 취급하는 학과목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새로운 과목들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 과정에 교육심리학이 교종별로 세분화되였다. 뿐만아니라 심리진단학, 심리위생학 등이 새롭게 개척되고 교육평가, 교육관리, 교육행정리론과 실무, 교육강령작성원리와 방법 등에 대한 여러 교재들이 새로 집필되였다.

이러한 성과들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오늘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초등 및 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고등교육부문의 교육사업도 끊임없이 개선되여가고있다. 현실은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풍부한 교육과학지식을 소유하고 교육실무적자질을 튼튼히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대학이 이룩한 성과들은 교육지도일군들, 교육행정일군들, 교육자들은 물론 앞날의 교원후비들의 교육자적자질을 높여주고 학생관리, 교원관리를 비롯한 교육관리사업을 과학화, 실용화해나가도록 하는데서도 실로 큰 의의를 가진다.

대학에서는 또한 교육조종학을 비롯한 교육과학의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첨단분야에로 그 령역을 넓혀가고있다.

대학이 이룩한 성과들은 교육과학의 발전을 떠나서 교육혁명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오는 과정에 마련된것이다.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틀어쥐고 주체적립장에서 교육과학의 모든 분야를 우리 식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대학교육자들의 탐구열의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교육과학의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 이곳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대학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신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중등일반교육과 교원의 역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은 고등교육과는 달리 4개의 교종이 이어달리기를 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유치원 높은반에서 시작하여 고급중학교에서 끝나게 되는 12년간의 교육과정은 체계성과 순차성, 련관성으로 호상 련결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아이들이 크면 알겠지, 웃학년으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리해하겠지 하고 생각하는것은 큰 잘못이다.

뿌리가 든든하여야 총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아래단계의 교육에서부터 기초를 든든히 다지지 못하면 그 후과는 엄중하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에서는 무엇을 배워준다고만 되여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주어 학생들을 어떤 수준에 올려세워야 하는가 즉 도달기준을 정해주었다.

그러므로 교육강령집행정형총화는 명실공히 교원들이 교수사업을 얼마나 진행하였는가에 대한 총화로 될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해당 교종, 해당 학년, 해당 학과목에서 어떤 수준까지 올려세웠는가에 대한 총화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이 뜻깊은 말씀속에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원들의 인생관과 풍모, 역할이 다 밝혀져있다.

모든 교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정치리론적자질과 교육실무적, 교육방법론적자질을 튼튼히 갖추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에 깨끗한 량심과 헌신적인 노력,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보통교육성 국장 김성일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체적지혜를 합쳐간다.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본체육대학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9일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총비서각하의 영생을 기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만년제약공장에서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최근 만년제약공장에서 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약품은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것만큼 의약품을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병원들에서 환자들을 제때에 치료하여 고칠수 있습니다.》

보건부문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고 의약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접하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초부터 약품의 가지수를 보다 늘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왔다.

지배인 송영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여러가지 고려약재들을 가지고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의 병치료에 좋은 의약품들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이곳 종업원들의 열의는 그 어느때보다 비상히 높아졌다. 공장안은 말그대로 비약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책임기사 김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은 고려약재들인 황금과 황백에서 기본약리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분리정제하여 필수미량원소의 하나인 아연을 유기복합체로 결합시켜 새로운 항균성고려약을 개발한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이 개발한 황금아연기관지염교갑약은 신약항생제의 리용으로 생기는 부작용과 독성으로 인한 간장장애, 콩팥장애, 비타민대사장애 등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기관지염, 담낭염, 급성대장염, 취장염 등 각종 염증을 치료할수 있는 천연항균항염증제이며 전국적인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는 만성호흡기감염증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황금아연기관지염교갑약의 생산공정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창조적열정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각종 신경통과 근육아픔, 관절아픔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인 살브카인주사약을 비롯한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우리 나라 팀

2016년 국제축구련맹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참가자격 획득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가 지난 18일부터 중국의 남경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팀은 이번 선수권대회 조별련맹전 2조에서 타이, 이란, 남조선팀을, 준결승경기에서 중국팀을 이기고 29일 일본팀과 결승경기를 하였다.

치렬하게 진행된 결승경기는 연장전까지 승부가 나지 않아 11m차기로 결속되였다.

우리 나라 팀은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하고 2016년 국제축구련맹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광포종오리를 천연기념물로 등록

광포종오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였다. 광포종오리는 함경남도 정평군 선덕리 광포호수가에 자리잡고있는 광포오리공장에서 자라고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6월 14일 승리를 확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광포오리목장(당시)건설을 밭기하시고 기술자양성과 오리원종확보 등 목장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종자알을 보내주시고 오리를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게 개량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광포종오리》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차례 광포오리공장을 찾으시여 종금기지를 잘 꾸리며 오리기르는 방법과 고기가공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등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광포종오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세심한 지도속에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들에 퍼져 인민생활향상과 우량품종의 오리육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광포종오리의 털색은 회고 속털은 누런색이며 부리와 발목은 진한 갈색이다.

대가리는 길고 부리가 넓적하며 눈은 두드러져 나와있다. 껍질은 연한 노란색이며 날개는 짧고 발달되지 못하였다. 가슴과 등은 넓고 길며 다리는 든든하고 짧다.

광포종오리는 알낳이률이 높고 빨리 자란다. 암컷 1마리는 한해에 150~160개의 알을 낳으며 질량은 80~90g이다. 다 자란 오리의 몸질량은 수컷은 3.5~4kg, 암컷은 3~3.5kg이다. 속성살찌우기를 할 때 40~45일만에 몸질량이 1.8~2kg에 이른다.

먹이소비가 적고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것 등 생활력이 강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새 품종의 오리를 육종하는데서 전망이 크다.

현재 광포오리공장에서는 광포종오리의 순종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광포종오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됨으로써 언제나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사랑을 길이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혈육의 정 넘칩니다

저는 대동강구역 룡라2동에서 사는 전쟁로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온하지도국 일군들의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제가 온하지도국 일군들인 정시용, 권영애, 리은경동무들을 알게 된것은 지난해 전승절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의 집을 찾은 그들은 자기들의 일터곁에 전쟁로병이 살고있는줄을 미처 몰랐다고, 이제야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며 많은 식료품과 생활용품들을 내놓는것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친혈육의 정은 끝없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생활에서 불편한것이 있을세라 보살펴주고 명절때면 별식과 함께 보약재까지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제가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줍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여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들은 귀한 약재들을 구해다주었고 병원에도 찾아가 전쟁로병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도 알아보고 대책도 세워주군 하였습니다.

얼마전 선군절에도 그들은 저의 집을 찾아와 성의껏 준비한 별식들도 펼쳐놓으며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전쟁로병이라고 존경하며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꼭 친자식들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일군들을 키워준 고마운 제도를 위해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도 많이 하고 자식들도 훌륭히 내세울 결심을 가다듬군 합니다.

송만금

영국과 동부띠모르에 가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출발

영국에서 진행되는 세계간염수뇌자회의와 동부띠모르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 제68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강하국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형훈 보건성부상과 스테판 파울 죠스트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전송하였다.

일본체육대학대표단 도착

마쯔나미 겡시로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이 2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마철수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오창복 조선체육대학 부학장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 있어 인민의 값높은 삶이 있다

조국해방 70돐경축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수령님이시며 수령님은 곧 조국입니다.》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경축한 우리 인민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에 부강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얼마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국해방 70돐경축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민족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조선의 밝은 래일을 더욱 앞당겨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마음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인민과 한치의 간격도 없는 겸허하신 모습으로

조국해방 70돐경축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장에 모셔진 영상미술작품들중에는 조선화 《미림벌의 새봄》과 아크릴화 《장산에 푸른 숲을 펼치시려》도 있다.

평양미술대학 교원들이 올해에 새로 창작한 이 영상미술작품들에는 새로운 형상적특성이 있었다.

지난 시기에 창작된 영상미술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허물없이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고계시는 력사적인 화폭을 형상하는데서 주로 주위인물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시는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경건히 우러러보는 영상미술작품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조선화 《미림벌의 새봄》에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첫 모내기를 하는 인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려고 미림벌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모춤을 손에 드시고 농민들과 함께 논판으로 걸어나오시는 모습이 형상되였다.

아크릴화 《장산에 푸른 숲을 펼치시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 그 어디에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시려는 숭고한 애국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창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목도채를 메시고 나무모를 운반하시며 산등성이로 오르시는 모습이 형상되였다.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삶, 수호자의 웨침

이번 전람회장에 전시되였던 500여점의 미술작품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삶과 조국의 수호자로 위훈떨쳐온 인민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들도 있었다.

조선화 《새봄》에는 땅을 분여받은 인민의 환희가 넘쳐흐른다.

소고삐를 잡고 앞에서 소를 끄는 아들의 얼굴에도, 뒤에서 써레채를 잡고가는 아버지의 얼굴에도 기쁨의 파도가 넘실거린다. 그것은 제땅에서 농사를 짓고싶어하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 꿈같이 찾아온 새 삶에 대한 희열의 분출이다. 작품을 보면 큰 눈을 슴벅이는 소까지도 마치 이들부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웃는것만 같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이 있어 이렇듯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인민의 삶이 약동하는것이다. 그 행복한 삶을 빼앗자고 덤벼든 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조국수호의 전장에서 어찌 우리 인민들이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지 않을수 있으랴.

조선화 《조국을 위하여》에는 그러한 전인민적감정이 진실하게 형상되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포연에 그을리고 파편에 찢긴 흔적이 력력한 공화국기발을 틀어쥐고 돌격전에로 부르는 인민군지휘관, 장렬하게 희생된 전우를 붙안고 그의 이름을 안타까이 부르는 인민군용사, 숨은 졌어도 억세게 틀어쥔 보병총만은 놓지 않은 병사, 쓰러진 전우의 원한을 씻으려 적진을 향해 비호같이 달리는 전투원…

적탄이 비발치는 전장, 타래치는 화염속에 살아있는것조차 기적같이 느껴지는 그곳은 351고지공격전투장이다. 작품을 볼수록 수령님 안겨주신 귀중한 삶을 빼앗으려는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만장약된 수호자들의 격렬한 웨침이 세차게 우리의 심장을 두드린다.

조국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귀중한 삶을 위하여!

이처럼 해방된 새 조국땅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불비쏟아지는 격전장에서 터져오른 수호자들의 웨침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쟁쟁히 울리고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는것만 같은 작품들의 견인력은 참으로 크다.

더욱 앞당겨가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

피로써 찾고 피로써 지킨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당의 의지이며 인민의 지향이다.

이번 미술전람회에 전시되였던 작품들가운데는 사회주의문명의 오늘을 벅차게 안아보고 더욱 밝은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우수한 산업미술도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해에 솟는 태양의 형상, 진한 푸른 선으로 함축한 갈매기형상, 명사십리의 모래불을 형상한 노란띠무늬, 여기에 갈마라는 두 글자를 조화롭게 결합한 갈마비행장마크도안이 아주 특색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조인 참매가 평양의 경치를 상징하는 버들잎을 물고 날아가는 모양을 형상한 평양국제비행장마크도안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색채형상에서 우리의 국기가 상징되고 더운색인 붉은색과 찬색인 푸른색의 조화로 리착륙을 보장하는 비행장으로서의 성격이 집약적으로 훌륭히 표현되였다.

이밖에도 우리의 자재와 기술로 만들수 있게 형상한 지하전동차형태도안을 비롯하여 모든 산업미술도안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약동하는 조선의 기상을 잘 반영하였다.

그 하나하나의 도안들은 문명한 미래를 향하여 끝없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높은 삶을 훌륭히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서 세세년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 당의 령도따라 더 밝은 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조국의 70년력사를 훌륭한 형상적화폭으로 감동깊이 보여준 미술전람회장에서 우리는 확신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의 령마루로 폭풍쳐달리는 공화국의 힘찬 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산골소년의 꿈과 세계

세계과학원 청년회원으로 선출된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김광현동무의 생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의 품,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였습니다.》

만포시의 산골마을에서 태여난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박사 김광현동무에게는 어릴적부터 꿈이 많았다.

꼬마서예가가 되고싶어 직심스레 붓글씨공부를 했다. 꼬마미술가도 되고싶었다. 노래를 잘 불러 평양학생소년궁전의 화려한 무대에도 나서고싶었다. 그러했던 산골소년이 지금처럼 30대박사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광현동무가 11살 되던 해에 강계시에 있는 1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울었다. 아들에 대한 대견함보다 부모도 헤아리지 못한 자식의 재능의 싹을 소중히 찾아 애지중지 키워주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앞서서였다.

배움의 나날이 흐를수록 광현동무의 자그마한 가슴속에는 큰 꿈이 자리잡았다. 과학자가 되고싶었다. 과학의 세계를 다는 알수 없어도 리승기, 계응상과 같이 과학자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싶었다.

당의 은정속에 리과대학 물리학부에서 공부한 그는 소원대로 당시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척되고있던 레이자연구부문에 뛰여들었다. 꿈많던 산골소년을 대학생으로, 과학자로 키워준 따뜻한 품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조국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유럽의 연구소에서 제노라 하는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과 어깨나란히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 그는 레이자에 의한 3차원형태 및 치수측정장치의 연구도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였으며 레이자, 광학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과 국제학술토론회 론문집 및 개요집 등에 18건의 론문을 게재하고 국제학술토론회에서 10여건의 론문을 발표하였다.

과학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그에게 어머니당은 하늘같은 사랑과 행복을 거듭 안겨주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5칸짜리 살림집의 세대주, 황홀하게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제1기휴양생…

지난 7월 김광현동무는 세계과학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보문을 받았다.

《면밀한 조사와 추천, 선출과정을 통하여 당신이 2015—2019년기간에 해당한 임기의 세계과학원 청년회원(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선출되였음을 기쁘게 통보하는바입니다. …》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지속적발전을 위하여 과학적능력과 우수성을 촉진하는것을 원칙적인 목적으로 하고있는 국제적인 기관인 세계과학원은 여러 대륙들에 5개의 지역사무소들을 두고있으며 2007년부터 해마다 매개 지역사무소들에서 특출한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한 5명까지의 청년회원들을 선출하고있다. 그날 저녁 그는 생각이 많았다. 조국해방 일흔돐을 앞둔 때여서인지 리승기, 계응상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해방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합성섬유인 비날론을 발명하고 누에유전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낼 당시 그들도 지금의 자기와 같이 30대의 청년들이였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내놓았어도 암흑의 그 세월에는 조선의것이 아니였다. 진정 그들의 과학의 꿈은 어버이수령님 안아오신 해방의 봄빛과 더불어 비로소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하기에 김광현동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과학원 청년회원이 된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기쁩니다. 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자가 되였다는 기쁨보다는 내가 다름아닌 조선의 과학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더 큽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과학으로 이 땅만을 지키고 세계에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리론물리학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연구소에서도 바로 며칠전 우리의 주인공 김광현동무를 회원으로 임명하였다.

어제날의 꿈많던 산골소년, 첨단돌파로 세계를 향하여 달리는 30대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한번 확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이 땅,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가시는 이 땅,

정녕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

본사기자 려명희

완공의 기쁨, 승리의 기쁨안고 맞이한 명절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기개와 투쟁정신을 만방에 떨치며 새로운 조선속도, 영웅적신화를 창조한 백두청춘들이 청년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백두대지를 청춘의 피끓는 심장으로 뜨겁게 달구며 충정과 위훈의 나날을 이어온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은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을 빛나게 결속한 자랑을 안고 청년절을 맞이한 감격과 기쁨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청년절 이른아침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올리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와 북부철길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마음속에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오전 9시부터 백두대지의 산협을 가로지르며 우뚝 솟아오른 1호발전소언제하류의 드넓은 장소에서 백두청춘들의 청년절경축무도회가 진행되였다.

노래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이후 130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관철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으며 승리의 오늘을 마련한 충천한 그 기세, 그 기백이 흥겹게 춤을 추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춤동작에 그대로 비껴있었다.

경쾌한 선률에 맞춰 으쓱으쓱 어깨를 돋구는 돌격대원들을 바라보며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려단 려단장 김철룡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돌격대원들이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한몸이 그대로 언제가 될 신념과 투지를 안고 충정의 전투를 벌리고 또 벌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어이 승리의 보고를 올린 그 영예와 긍지를 생각하면 춤가락이 저절로 나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 담대한 배짱과 열정을 춤동작에 담아가는 청년돌격대원들, 전투장에서는 혁신자로, 춤판에서는 무용수 못지않게 아름다운 률동을 펼치는 처녀돌격대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청년강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어려왔다.

노래 한곡한곡이 끝날 때마다 청년돌격대원들이 터치는 함성과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가 온 산발을 들었다놓았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선률이 울리자 청년돌격대원들의 사기는 절정에 달하였다.

무도회에 이어 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든 푸짐한 식탁에 마주앉았다. 8.28청년돌격대판리국 운수기동려단 정치부장 리순철동무는 백두청춘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 깃든 식료품들을 받아안고보니 정말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면서 어머니 우리 당에 언제나 승리의 보고만을 올리는 청년영웅들로 준비할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각 려단 및 단위별로 준비한 음식품평회도 이채를 띠였다. 후방사업이자 정치사업이라는 자각을 안고 돌격대원들의 식사보장을 위해 헌신한 일군들과 후방부문 성원들의 지성이 그대로 엿보이는 음식들은 청년들의 호평을 받았다.

현장련합지휘부식당의 오기순동무는 우리 원수님께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을 위하여 앞으로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다졌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흥겨운 오락회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오락회를 진행하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은 항일의 전구에서 원쑤 일제와의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경축무대를 펼치던 항일유격대원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청년절의 온 하루는 환희에 넘쳐 승리를 경축한 백두청춘들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백두전역에 차넘친 승리자들의 기쁨과 긍지, 그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려는 조선청년들의 억센 신념과 맹세의 분출인것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처녀대의원

‖수 필‖

지난 7월 19일에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황해북도인민병원 의사 송윤희동무도 도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온 처녀이다.

처녀대의원!

조용히 되새기느라니 처녀라는 부름과 함께 불러우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호칭들이 떠오른다. 처녀어머니, 처녀선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의 품속에서 새로운 시대어로 태여난 그 부름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송윤희동무는 《정성》이라는 두 글자의 깊은 뜻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스스럼없이 우리 의사선생님이라고 정과 사랑을 담아 부르는 처녀이다.

선거날 우리가 송윤희동무가 선거되는 선거장에 도착하였을 때 선거장앞마당은 기쁨과 행복에 넘친 사람들의 흥겨운 춤바다로 설레이고있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되게 송윤희동무의 사진앞에서 이윽토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있는 한 중년녀인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비껴들었다. 그에게서 치료를 받은 환자일가 아니면 친척일가. …

알고보니 그는 송윤희동무를 키운 중학시절 담임선생님이였다. 대의원으로 선거되는 제자와 스승이 눈길을 마주하고있었던것이다. 사진속에서 10여년전 제자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추억하는 스승의 심정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긍지스럽습니다. 이런 미더운 청년들을 가진 우리의 래일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의 말과 더불어 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 대의원이 되는 내 조국의 벅찬 현실이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다.

오래 일했다고 빛나는 삶이 아니며 나이가 젊었다고 한 일이 적은것은 결코 아니기에 송윤희동무는 누구나 사랑하며 존경하는 보건일군, 말없는 실천으로 인생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멋쟁이청춘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뚜렷이 새겨져있는것이 아닌가.

때문에 사람들은 처녀의 이름이 새겨진 한장의 선거표에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그가 앞으로도 참된 인간생명의 기사, 우리 처녀대의원으로 값높이 불리우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인민정권을 더 잘 받들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담아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것이다.

어찌 그 처녀대의원뿐이랴. 조국보위초소들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그리고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한 우리 공화국을 지키고 떠받들며 빛내이기 위한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이렇듯 미더운 선군청년전위들이 청춘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쳐가고있거니 바로 그래서 내 조국은 그토록 약동하고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한것 아니랴.

그렇다.

강선땅의 처녀어머니, 사리원땅의 처녀대의원과 같은 미덥고 자랑스러운 청춘들이 사회주의제도의 밑뿌리가 되여 높이높이 떠받들고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나라, 청춘의 억센 기상으로 줄달음치는 오늘의 시대의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우리 청년들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정권이여!

청춘의 혈기로 답보를 모르고 청춘의 숨결로 언제나 젊어있는 그대의 푸르른 하늘엔 공화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청년강국, 사회주의 우리 세상의 주인이 된 복받은 인민의 삶은 더더욱 만발하리라.

강효심

제1차 일본의 침략력사외곡과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 진행

【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제1차 일본의 침략력사외곡과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가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교육부문의 교원, 연구사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중국의 여러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략탈, 살륙의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일제가 저지른 피비린 범죄의 력사를 신랄히 폭로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일본의 과거범죄와 침략력사외곡의 진목적》, 《일본의 력사수정주의와 〈전후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인대학살만행을 은폐축소하는 일본의 력사외곡행위》, 《근대일본의 대외침략죄행과 그 력사관문제를 론함》, 《특대형의 녀성인권유린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 《우리 나라 표준시간을 말살하고 일본표준시간을 강요한 일제의 강도적죄행》, 《일본식민주의언어환경에서의 침략죄행은폐와 미화에 대하여》, 《을미사변의 진상을 외곡날조한 일제의 책동》,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국제법적책임》,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날강도적인 령토강탈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 등의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의 력사는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한 인류력사에 있어본적없는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이며 피비린내나는 살륙과 강탈의 력사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대외침략사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발광적이며 야만적인 성격을 띠고있다고 하면서 일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야수적이고 날강도적인 살륙만행들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들로 론증하였다.

19세기말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국주의의 광란적인 침략책동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포악성은 인류사에 지울수 없는 고통의 한페지로 남았다는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일본의 죄악에 찬 과거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다 해도 절대로 묻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는 력사의 진실이라고 하면서 을미사변, 조선인대학살만행, 남경대학살을 비롯하여 일제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살륙만행들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간에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고 20만명의 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갔다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력사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관련한 자료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조선인민의 성과 이름은 물론 나라의 표준시간까지 강탈하고 저들의것을 강요한 일제침략자들처럼 그렇게 극악하고 파렴치한 제국주의자들은 찾아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족에게 끼친 막대한 인적, 정신적, 물질적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려는 일본의 책동은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본반동들이 과거 저들의 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종군간호원만 있었을뿐 종군위안부는 전혀 없었다.》느니 뭐니 하며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고 지어 일본정부와 출판보도물까지도 8월 15일을 전패의 날, 항복의 날이 아니라 《전쟁종식일》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력사수정주의는 일본사회의 매우 위험한 정치적경향이며 일본정부와 우익세력의 그릇된 력사관은 철저히 《집단적자위권》행사와 평화헌법수정 등을 통하여 《대일본제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일본은 미국의 묵인과 비호밑에 더욱 꺼리낌없이 헌법개악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실제상 전쟁법안이며 그들이 표방하는 《적극적평화주의》는 적극적인 전쟁주의라고 까밝혔다.

토론자들은 력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의 침략력사외곡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말고 견결한 투쟁을 벌리는것이 오늘 국제사회앞에 나선 중대한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일제가 조선에 대하여 감행한 범죄의 성격과 피해규모를 놓고 볼 때 일본의 책임은 오직 사죄와 배상외에 다른 형식이 있을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본당국자들이 시대의 요구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토론회는 지난날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오늘도 침략력사외곡과 군국주의재침책동에 미쳐날뛰는 일본의 죄행을 준렬히 단죄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누구나 알아야 할 우주상식(2)

정지위성

정지위성은 적도상공 약 3만 6000㎞의 고도에서 24시간의 궤도주기를 가지고 지구둘레를 도는 인공위성이다.

정지위성은 지구상에서 보면 마치 멎어있는것처럼 보인다.

항상 안정한 통신을 보장할수 있는 정지위성은 통신과 방송부문에서 많이 리용되고있다.

정지위성에 의한 통신은 포괄범위가 넓고 통신거리가 먼것이 특징적이다. 대양사이의 통신도 충분히 가능하다. 3개의 정지위성으로는 북극지역을 제외한 전지구를 포괄하는 전화, 텔레비죤방송중계 등 각종 통신을 실현할수 있다.

정지위성에 의한 통신에서는 신속성과 신축성, 기동성을 보장할수 있다. 위성통신은 교통과 환경, 기후 등 자연지리적조건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몇개의 지구국만 설치하면 지상통신에서와 같이 까벨을 늘이지 않고도 통신을 실현할수 있으며 이동지구국이나 반고정지구국을 건설하면 자동차와 기차, 각종 배들, 비행기들사이의 이동통신을 진행할수 있다.

정지위성에 의한 통신은 통화용량이 크고 매우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쓰기때문에 고속정보통신과 텔레비죤방송중계 등 용량이 큰 정보통신을 실현할수 있다. 실례로 현재 200여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리용하고있는 어느 한 국제정지통신위성은 1만 2000통화의 전화와 2개 통로의 천연색텔레비죤방송신호를 동시에 전송할수 있다. 정지위성에 의한 통신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을뿐아니라 대기층에서의 굴절과 기후의 영향도 적게 받는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통신의 믿음성과 질이 매우 높은것이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또한 한번의 중계를 통하여 많은 지역과의 련계를 실현할수 있는것도 정지위성에 의한 통신의 특징으로 되고있다.

국가우주개발국 김정오

과학기술보급실을 적극 리용하여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있다.
—대동강축전지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자주적운명개척의 밝은 전망을 열어준 조선해방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 진행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영국, 벨가리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주체사상과 조선해방 70돐》이라는 주제의 련합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 자루의 권총으로 무장투쟁을 시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15성상의 무장투쟁을 벌리시여 1945년 8월 15일 조선을 해방하는 영원불멸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의 해방은 오직 무력에 의해서만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증명하였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견지하시면서 혁명적당들사이의 진정한 단결과 평등을 위하여 노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뿔럭불가담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참으로 그이의 한생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위대한 생애였다.

벨가리아공산주의자당 위원장,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책임자대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의 해방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선인민에게 새 조국건설과 자주적운명개척의 밝은 전망을 열어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열렬히 격찬하였다.

그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조선은 진보적인류에게 진정한 사회주의사회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공세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위업을 수호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것을 긍지로 여긴다고 말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리데타지부소조 책임자는 1945년 8월 15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력사의 전환점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은 처음부터 자기의 독창적인 지도사상에 따라 건설되였다.

조선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요구대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이고 국가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며 조선인민군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수호자이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 위업을 굳건히 고수하고있는 조선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찬탄의 대상이다.

인도네시아 아디따 아리야쁘라위라선박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해방업적은 그이께서 몸소 집필하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집대성되여있다.

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석께서 찾아주신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조선에서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새로운 표준시간을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려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준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달성할것이다.

영국, 벨가리아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와 축전이 채택되였다.

여러 나라 단체들 인터네트에 글 게재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단체가 13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인터네트 홈페지에 글을 올렸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조국해방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정신문화적재부들과 조선의 자원을 마구 파괴략탈하였다.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이 강제련행, 랍치되여 전쟁터와 고역장에 끌려갔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제 나라 말과 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꿀것을 강요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장기간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최근 조선의 평양시간제정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잔재를 청산하기 위한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저들의 과거범죄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김일성주석, 전설적빨찌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신묘한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짓부시고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위인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벌가리아단체 불레찐특간호 발행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에서 5일 불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조선해방 70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지난 세기초 일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벌리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혁명가들은 무장투쟁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이미 국내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광범한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최후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전국각지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습격소탕하고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렸으며 진격해오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지원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커다란 환희와 기쁨속에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위업수행에 력력히 새겨진 선군업적

◎선군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좌담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돐에 즈음하여 25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해온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라고 하면서 그는 선군령도의 길에 나서시여 장장 50여성상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이룩하신것으로 하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에 발걸음을 맞추어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계속 강행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발언자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회고하였다.

그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백두산천출명장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 경축모임 진행

뜻깊은 선군절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가 22일 청사에서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들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들이 행사장에 모셔져있었다.

행사에는 주영일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과 협회일군들,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우즈베끼스딴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주영일회장은 8월 25일은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라고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55년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기둥,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조국에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반석같은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언명하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의 대조선압살공세를 제압하고 나라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선군혁명의 기수인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파급되여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기적들이 창조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서도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고 피력하였다.

그는 동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험천만한 항공모함배비놀음

미국방성이 페르샤만지역에 배비하였던 항공모함을 철수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하려 하고있다.

미국방성판계자는 페르샤만지역에 항공모함이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배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모함의 배비시도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 특히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전쟁위험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 사로잡혀있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올해에도 《키 리졸브》, 《독수리》침략전쟁연습들을 벌려놓았다.

특히 미국은 최근 남조선과 야합하여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노린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를 험악한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군사적망동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이번 미항공모함의 배비시도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항시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를 기어이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로골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항공모함을 배비하면서 노리는 목적은 이뿐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인 지역으로 되고있다. 몇년전 미국은 이 지역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21세기 저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고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놓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적수로 되고있는 대국들이 집중되여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곳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거점으로 군사적우위권을 장악하여 지역대국들을 견제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책동에 대처하여 지역나라들이 자체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나가고있는 사실들은 미국을 더욱더 불안케 하고있다. 더우기 심각한 재정위기로 군사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미국에 있어서 신형항공모함들을 짧은 기간내에 건조한다는것은 너무도 힘에 부친 일이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강행추진시키려고 획책하고있는 미국이 방책으로 찾은것이 바로 이번 항공모함배비놀음이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지배체계를 어떻게 하나 부지해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무모한 무력증강책동을 지역나라들이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이 항공모함따위로 놀래워보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춘 우리는 미제가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요란하게 저들의 위세를 뽐내는 최신예항공모함들을 한갖 육실하고 비대한 변태동물로밖에 보지 않는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인 미제와 총결산하고 악의 아성, 전쟁의 근원인 미국을 이 지구상에서 송두리채 들어내고야말것이다.

미국은 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쩌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김국철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일본과 끝까지 결산할것이다

천추에 용납 못할 문화재략탈만행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적개심은 더욱더 불타고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운 과거 일제의 죄악에 대하여 아직까지 배상은커녕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단일민족이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널리 전파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곧 문명의 거울이였다.

그러나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강행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여온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를 무참히 파괴하고 강탈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해당 나라와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성의 상징으로, 문화발전과 정신도덕생활의 결정체로 된다. 따라서 문화재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조국애를 심어주는 수단의 하나로 되며 그것을 창조하고 계승한 민족의 후손들에 의하여 대대손손 전해져야 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재보로 된다.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파렴치한 일제는 우리 인민이 민족의 자랑으로 세기를 이어가며 보존해오던 단군릉과 동명왕릉을 비롯한 력대 왕릉들과 수많은 고분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다.

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를 비롯한 력대 《통감》, 《총독》이란자들부터가 문화재략탈에 미쳐날뛰였다. 이또 히로부미는 우리 나라에서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문화유물들을 빼내여 왜왕에게 섬겨바치거나 동료들에게 《선물》하였으며 데라우찌는 귀중한 문화재를 략탈해가다 못해 그것으로 자기 고향에 《조선관》이라는것까지 차려놓았다. 그러니 그 수하졸개들의 략탈만행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일제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1910년대에 이르러 수많은 왕릉들을 모조리 도굴하였다고 서술한것은 일제의 략탈만행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날강도 일제는 고분에 대한 도굴, 파괴뿐아니라 우리 인민이 수천년간 창조한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에 대한 강도적략탈에 더욱 광분하였다.

고려자기는 그 색과 모양, 문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와 세상사람들에게 《천하의 보물》로 알려진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일제는 식민지통치 전기간 고려시기 고분들을 수많이 도굴하고 그안에 묻혀있던 고려자기를 비롯하여 각종 금속공예품들을 마구 략탈하였다. 이렇게 략탈해간 고려자기들이 얼마나 우수하였는가는 당시 도꾜에서 열린 일본 3대귀족들의 부장품전시회에 출품된 고려자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강점기간 일제가 략탈해간 문화재는 초보적으로 알려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도꾜국립박물관에 진렬된 4만여점을 비롯하여 고려자기, 민족고전 등 수십만점이나 된다.

력사에는 귀중한 문화재들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식민지들에서 략탈당하거나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의하여 파괴된 사실들이 무수히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문화재파괴략탈행위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규모적이며 조직적인것이였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귀중한 문화재를 반환할 대신 오히려 그것을 저들의 《국보》로 등록하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놀음도 벌려놓고있다.

2013년 10월 일본의 도꾜국립박물관에서 《조선시대의 미술》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품들은 모두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귀중한 문화재들이였다.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국보급인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황실유물들이였다. 고종황제가 사용한것으로 알려진 갑옷과 투구도 있었고 지어 명성황후를 살해한 살인범이 당시 방에서 들고나온 소반도 있었다. 현재 일본의 국립, 사립박물관과 미술관들에서는 일제가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수많은 문화재들을 전시해놓고 저들의 《국보》로 둔갑시키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다.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문화재파괴략탈만행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민족성을 말살하고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는 용납 못할 야만행위이며 반인륜적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일제패망 70년이 된 오늘까지도 죄악에 찬 과거력사를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오히려 정당화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또다시 군국화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동방의 파쑈국가로 만들려고 더욱 날뛰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비법강탈하였던 문화재를 반환하는 사업이 과거를 청산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국제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도이췰란드정부는 나치스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지불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파쑈분자들이 강점지역들에서 략탈해갔던 문화재도 반환하고있다.

이미 많은 문화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반환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죄많은 과거사를 전면부정하고 군국주의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는 등 너무나 대조적으로 놀아대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며 력사를 부정하면 천벌을 받기마련이다.

일본반동들은 오늘의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보고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문화재략탈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룡

파키스탄의 항

사회적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여러 나라들 협조

필리핀과 메히꼬가 23일 두 나라사이의 무역을 확대하고 운수부문을 발전시킬데 관한 협조문건에 조인하였다.

이에 앞서 20일 따쥐끼스딴과 뚜르크메니스딴은 두샨베와 아슈가바뜨사이의 직항로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는 따쥐끼스딴대통령의 뚜르크메니스딴방문과정에 이루어졌다.

도로건설계획

방글라데슈에서 새 도로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콕스 바자르지역과 이웃나라의 국경지대를 련결하게 될 새 도로는 2017년 6월에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24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테로반대투쟁

케니아에서 최근 테로반대투쟁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23일 이 나라 경찰은 가리싸에서 2일간의 반테로작전을 벌려 2명의 테로협의자들을 체포하고 많은 무기와 수류탄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나라의 인권실태를 개탄

미국의 워싱톤에 있는 케이토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여 나라의 한심한 인권실태를 개탄하였다.

보고서는 미주리주의 퍼구슨시에서 일어난 백인경찰의 흑인살해사건을 비롯하여 미국내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이 방임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및 법적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당국이 국내외에서 불법무도한 도청감시행위를 일삼아온데 대해 비난하였다.

미국이 더이상 세계앞에 미국식《자유》를 떠들거나 인권에 대해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였다.

방사성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영국에서 방사성가스인 라돈가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늘어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21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아일랜드에서만도 약 15만 5 000세대가 라돈가스에 의한 피해를 입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년간 약 1 000명이 라돈가스때문에 페암에 걸려 목숨을 잃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감행되는 군국주의부활과 력사외곡책동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부활과 력사외곡책동에 더욱 미쳐날뛰며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19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일본의 재무장책동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방위성이 다음해방위예산을 력대 최대규모로 늘였다.

일본방위성은 올해예산보다 대폭 증가된 자금을 래년도군사비로 할당하였다 한다.

일본은 막대한 군사비를 가지고 최근 10년동안 장기계약까지 취하여 미군용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를 대대적으로 구입하는 한편 무기도입과 《자위대》실전배비비용으로 쓰고있다.

일본은 해마다 방위의 명목하에 예산을 교묘하게 늘이며 재무장에 매달리고있다.

일본의 력사외곡책동도 더욱 파렴치해지고있다.

20일 남조선의 《서울신문》은 일본이 독도강탈야망을 로골화하고 과거침략력사를 부정하면서 력사외곡에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19일 일본외무성이 독도와 과거사문제에 대한 저들의 강도적주장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교과서를 46개 언어로 제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미 일본은 교과서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였으며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서술을 빼고있다.

현실은 일본이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올해를 과거의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는 계기로 여길 대신 오히려 그때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야망실현을 위해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준비에 얼마나 지랄발광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집권자의 기만적인 담화를 비난

15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일본집권자가 발표한 기만적인 《전후 70돐담화》라는것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이번에 일본수상이 담화라는것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고 그 핵심은 전후 일본이 과거죄행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으며 이미 충분히 사과하였다는것으로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난하였다.

오히려 과거침략행위를 두고 국제렬강들의 새로운 지배질서에 대한 《도전정신》이니, 서유럽렬강에 맞선 《불가피한 행보》니 하는 식으로 합리화하였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사설은 참혹한 반인권적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과 사과가 전혀 없이 군부, 관청에 의한 강제련행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고 단죄하였다.

과거는 가해자가 릴고가자고 해서 덮어지는것이 아니며 이것은 력사외곡으로 될뿐이라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최근 일본의 강경우파내에서 내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수정 및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기본골자로 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추진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파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사설은 이를 외면하는 세력은 일본에서도 남조선에서도 례외없이 청산대상이 될뿐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침략범죄와 군국주의야망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ㄱ-51137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